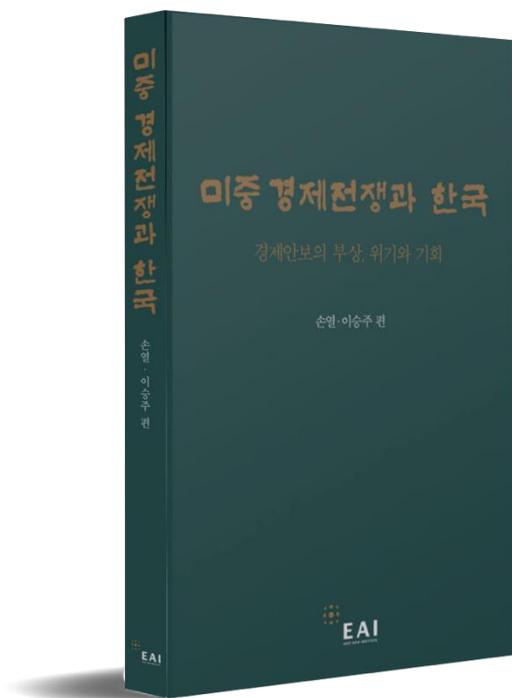


미중 경제전쟁과 한국

경제안보의 부상, 위기와 기회



손열 · 이승주 편

정치/사회 > 외교/국제관계 | 경제/경영 > 세계경제/국제경제
276쪽 | 152×225mm | 25,000원 | 2024년 4월 1일 출간
ISBN 979-11-6617-735-4 93340

격화되는 미중 경제전쟁 속 한국의 선택은?

미중 양국의 이익 재조정 과정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봉착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미중 경제전쟁

지구화(globalization)의 시대가 지나고 각국이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세계 경제의 분단(디커플링, decoupling)을 초래하는 뉴노멀(new normal)이 등장하며 한국은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2020년대 들어 국가안보와 연계되는 전략경쟁으로 확대되었다. 미중 두 나라를 주요 교역국으로 두고,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관계의 동향에 따라 사활적 영향을 받는 한국으로서 미중의 분단과 대립은 거대한 도전이다. 한국은 미국의 디커플링 요구와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이중 압력 사이에서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미중 경제전쟁이 한국에 주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다룬다.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지정학 리스크로 세계 경제 질서가 처한 혼란과 대응 과제, 그리고 경제와 안보를 연관 짓는 주요국 전략의 결과로 한국이 받는 영향과 그간의 대응을 규명한다. 각 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와 핵심 광물, 자동차, 금융, 군사 인공지능 등 주요 산업 부문의 사례와, 미국, 유럽연합, 중국,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한다.

EAI 국제정치경제 전문가가 제시하는 경제안보의 부상 속 한국의 활로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동아시아연구원(EAI) 국제정치경제 전문가들은 주요 산업과 기술을 둘러싼 미중의 경제안보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 양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개념과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이 나아갈 길을 고찰한다.

서장에서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가안보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미중 간 경제적 상호 의존 심화가 중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리며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적 무역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되짚는다. 이처럼 중국을 배제하거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디커플링 전략에 대한 반발로 디리스크(de-risking) 개념이 등장했다고 소개하면서, 미중 양국이 어떻게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으며 디리스크 전략에 따라 한국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제1장에서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미중 경제안보의 핵심 요소로 꼽으며, 반도체 산업 정책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갖추고 국제 협력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미중 경제전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첨단 반도체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미중 반도체 경쟁의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독자적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과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제2장에서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등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광물 공급망 단계의 개발도상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국의 전략을 소개한다. 나아가 한국도 핵심광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 방안으로 캐나다 및 호주 등과의 광물 협력과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국가와의 다자협력 체계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부상하는 가운데 서방의 대중국 견제 입법과 중국의 금속 수출통제 및 해외직접투자 촉진 움직임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

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에게는 중요한 경제안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한국의 경제 및 시장 규모와 지정학적 양상을 고려하면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취약성 보완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제4장에서 이용욱 고려대 교수는 미중 양국이 전략 경쟁을 벌이면서도 금융 분야의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현상을, 각국의 정치 지도자가 국내정치적 이득을 위해 타국을 안보 위협 대상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공범자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나아가 경제적 상호 의존이 국제정치의 흐름에 따라 상대방을 압박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금융 분야의 중추국 외교를 통해 주요국과 집합적 정책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미중 양자에 대한 공세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을 겸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5장에서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원 소장(서울대 교수)은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에 의한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을 선점하는 쪽이 전략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것이고, 아직 AI 운용에 관한 국제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사 AI 활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어서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 다자 체제하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통제 조율 문제가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은 이러한 조율 과정에서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미 및 대중 관계를 관리하는 한편 AI 발전이 동 기술의 파멸적 군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범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제6장에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디리스킹 기초를 내세워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미국과 유럽의 전략을 소개하면서, 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출입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예시로 든다. 저자는 이러한 조치가 지정학적 경쟁을 비롯한 공급망, 보건, 기술 등 다발적 도전에 대응하여 자국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평가하며, 경쟁국에 공격적 수출통제를 취하는 미국과 대내외적 위험 요인의 경종을 파악하여 비교적 신중한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유럽의 정책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제7장에서 김용신 인하대 교수는 경제 안보를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하위 개념이자 당의 핵심 지휘 대상으로 상정하고, 미중 전략경쟁 속 중국의 서구 의존과 신흥 개발도상국의 도전, 국제무역의 일방주의를 주요 위협 요인으로 여기는 시진핑 정권의 대외 인식과 전략을 분석한다. 특히 중국의 경제 안보 목표는 시진핑 정권과 당의 지속 및 국가 번영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중앙집권적 경제안보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첨단기술 및 핵심광물 분야의 양국 간 전면적 경쟁 관계 및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복합 의존 상황에 유의하며 선제적 대응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제8장에서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원 소장(중앙대 교수)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경제적 강압이라는 지정학적 도전의 이중고 속에서 한국이 시도하고 있는 지정학 및 지정학 대응의 결합 전략을 분석한다. 나아가 한국 경제안보의 방향으로 경제와 안보의 효과적 연계를 통한 전략적 우위 확보, 기술주권 확보와 국제협력 추진 사이의 상충 관계를 완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접근법, 국익과 민간 이익의 균형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제시하고, 그 기반에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에 설립된 비영리 · 독립 ·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EAI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제 간 연구와 국내외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생산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필진 소개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및 교수, 글로벌 기후환경학과 교수 및 한양에너지환경연구원(HY-IEE) 원장.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초빙연구원, 미국 드포대학교(DePauw University) 초빙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에너지안보, 국제석유정치, 자원생산국의 정치경제 문제, 첨단산업, 핵심광물지정학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글로벌에너지정책전문가 사업(GETPPP: Global Energy Technology Policy Professionals Program), 개도국공무원 에너지기술정책 석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자원안보자문단’ 위원이다. 주요 저서로 『전기차배터리순환경제』(한울아카데미, 2023)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라의 눈 출판사, 2022) 『한국의 미래에너지 전략 2030』(한울아카데미 2018) 등이 있으며, 주요 논저로는 “Iran and Afghanistan between China and India: Great Power Competition for Regional Connectivity in South, Central Asia,” “2005년 이후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장악과 미국의 대응,” “The Emerging US-China-Russia Strategic Triangle in Central Asia: Still Defying Great Power Expectations?”, “The Peaceful Rise of China Sino-Russian Rivalry in Central Asia”, “Rethinking Security in Central Asia: Contending Paradigms and Current Perspectives”, “Rethinking China’s Approach to Border Disputes: China’s Border Policy Toward Central Asia, 1991-2011”, “The Arctic: A New Issue on Asia’s Security Agenda”, “Why is Russian Energy Policy Failing in East Asia?”, “Russia and the Six-Party Process in Korea” 등이 있다.

김용신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에서 중문학·사회학을 이중 전공하고, 정치외교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하와이대에서 중국 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과정 당시 홍콩 중문대학교, 베이징대학교, 난카이대학교 등에서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중국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정치경제이다.

-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해외투자의 정치경제,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과학기술외교 분야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 “과학기술의 세계정치 연구”(2021), “국제정치패권과 기술혁신: 미국 반도체 기술 사례”(2020),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2020), 『중견국 공공외교』(2013) 등이 있다.
- 손열** 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아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개념전쟁: 아시아에서인도-태평양까지, 강대국의 공간 지배 전략과 한국의 선택』(2023),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공편),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2019),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싱가포르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및 편저서로는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Between Power and Network,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일대일로의 국제정치』, 『미중 경쟁과 디지털 글로벌 거버넌스』 등이 있다. 이외에 “South Korea's Economic Statecraft in a Risky High-Tech World”, “Changes in Interdependenc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New Dynamics of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기술과 국제정치: 기술 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경학의 부상”, “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디지털 무역 질서의 국제정치경제”,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 FTAs in East Asia”, “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이왕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미중 경제관계 및 기업-국가 관계이다. 주요 논저로 “중국사와 국제정치: 21세기 중국 역사공정의 국제정치적 함의”(2023),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2022), “대만의 경제안보: 신남향정책과 반도체 산업”(202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발전모델의 변화 반도체 산업정책 사례”(2022) 등이 있다.
- 이용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남캘리포니아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구성주의 이론을 토대로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로는 동아시아 금융통화 거버넌스와 지역협력, 글로벌 통화체제의 동학(달러체제의 미래와 위안화 국제화), 대안세계질서, 한국의 금융외교 등이다. 최근 논저로는 "Status Quo Crisis Again? RMB Challenges and Dollar Hegemony (Forthcoming)," "관계론으로 본 지역의 형성과 발전 (Forthcoming)," "Experience, Communication, and Collective Action: Financial Autonomy and Capital Market Development in East Asia (2022)" 등이 있다.
-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국제학 박사학위 (국제통상 전공)를 취득하였다. 국립외교원 부임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였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디지털통상론』(2024),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 주요국의 통상정책과 시사점”(2023), “경제안보의 관점에서의 디지털무역 규범과 우리의 디지털경제외교 전략”(2022) 등이 있다.
-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현재 통일부/외교부/국방부/육군/해군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21),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방문교수를 2년 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 이론, 국제관계사, 동아시아 안보론, 한국외교정책 등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이론으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2020),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2019),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현실주의』 (2012),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2011)등이 있다. 편저로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불완전 주권과 지역갈등』 (2018), 『복잡성과 복합성의 국제정치』 (2017),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2015) 등이 있다.

책을 펴내며 _ 7

서장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가안보의 균형 _ 11

손열 | 연세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제1부 산업부문별 대응

제1장 반도체 산업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략 _ 35

배영자 | 건국대학교

제2장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확보방안 _ 65

김연규 | 한양대학교

제3장 중국 전기자동차(EV) 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경제안보에 주는 함의 _ 96

이왕희 | 아주대학교

제4장 미중 전략 경쟁 속 금융 상호의존 강화: 패러독스 혹은 무기화의 서막? _ 127

이용욱 | 고려대학교

제5장 미중 전략 경쟁 속 군사인공지능의 정치경제 _ 157

전재성 | 서울대학교

제2부 주요국별 대응

제6장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정책 _ 191

이효영 | 국립외교원

제7장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과 전략 _ 213

김용신 | 인하대학교

제8장 지정학/지경학의 이중 도전과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연속성과 변화 _ 233

이승주 | 중앙대학교